

최신식 양계장(닭공장) 건설 박차

- 홍보팀 -

최 근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국 각지에 최신식 축산시설(축산기지)을 조성토록 함에 따라 양계산업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최신식 양계장 및 가금농장을 건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설은 대부분 군부대 인력이 동원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공정들이 일사분란하게 진척되고 있다고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북한의 양계산업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 앞으로 본지는 북한의 양계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지면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참고자료 북한농업연구센터)

1. 북한의 양계뉴스

1) 벌레를 길러 닭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사료문제 해결(전문소개)

- 나뭇잎 80%, 쌀겨 20%의 비율로 가마에

넣고 고루 섞은 다음 적은 양의 물을 넣고 끓인 후 항아리나 콘크리트 움에 넣으면 여름철에 5~7일이면 많은 양의 구데기가 생기므로 이것을 닭에게 먹이면 됨.

- 소똥으로 기른 벌레를 먹일 경우 말린 소똥을 부스러뜨려 약간의 쌀겨, 밀기울과 섞은 다음 부드러운 흙과 섞은 후 100~170cm, 높이가 100cm되게 무지를 쌓아 놓고 그 위에 거적이나 잡풀을 덮고 매일 1~2번 물을 주어 눅눅한 상태를 유지시키면 보름정도 지나면 벌레가 많이 생긴다.

- 콩비지로 기른 벌레를 먹이는 경우 비지 1~1.5kg을 항아리에 넣고 적당한 양의 물을 넣으면 여름철에는 5~7일이면 벌레가 많이 생긴다.(민주조선/05.16)

2) 계분으로 가축사료 이용

북한에서는 종계장 수천마리에서 나오는 계분을 이용, 한해 100여톤의 먹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료제작 방법은 계분을 모아 가마에 찌 균 처리를 한후 24시간이 지나면 돼지 등 가축의 먹이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 배설물 먹이에는 다른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임.(노동신문)

3) 태엽식 인공부화기로 부화율(알깨움율) 향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엽을 이용하여 효

과적으로 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황해도 린산군종합농장에서 개발한 이 부화기는 온습도 조절을 자동적으로하고 태엽의 힘으로 알굴리기를 규칙적으로 하여 부화율(알깨움율)을 종전보다 21% 높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태엽식 인공부화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벽시계 부품과 1.5V 건전지, 감속치차와 전달부리, 온·습도계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민주조선) 양계

북한의 양계 용어 정리

◦ 가축	→	집짐승	◦ 가금농장	→	가금목장
◦ 양계장	→	닭공장	◦ 계사	→	닭우리
◦ 종계	→	종금	◦ 산란계	→	알날이닭
◦ 육계	→	고기닭	◦ 종추장	→	후보닭우리
◦ 계란	→	닭알	◦ 종계장	→	종금장
◦ 육계농장	→	고기닭장	◦ 산란계농장	→	알날이닭장
◦ 육성사	→	비육우리	◦ 부화	→	알깨우기
◦ 부화장	→	알깨우기실	◦ 육성	→	기르기
◦ 사료급이	→	먹이공급	◦ 급수	→	물공급
◦ 산란율	→	알날음율	◦ 부화율	→	알깨움율
◦ 전란	→	알굴리기	◦ 사료	→	먹이가공
◦ 사료공장	→	먹이가공기지	◦ 도계	→	고기가공
◦ 도계장	→	고기가공기지			